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미 증시, 오픈시 발 시 산업 불안, 유가 변동성 확대 등으로 약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8일(화) 미국 증시는 오픈시의 실적 목표치 미달 소식에 따른 AI 산업 불안이 재고조된 가운데, 29일 예정된 M7 실적 경계시리까지 확산된 여파로 엔비디아(-1.6%), 마이크론(-3.9%) 등 반도체, AI 업종을 중심으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약세로 마감(다우 -0.1%, S&P500 -0.5%, 나스닥 -0.9%).

또한 UAE가 “에너지 생산을 위한 투자 가속화,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을 이유로 OPEC을 탈퇴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은 “UAE의 독자적인 증산 가능성 -> 중장기적인 원유 카르텔 균열 및 글로벌 원유 공급 증가 -> 유가 하방 압력”의 경로를 생성시킬 수 있는 요인이었음. 그러나 여전히 미-이란 협상 교착상태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이날 유가의 하방 압력을 제한하면서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이제 시장은 4월 FOMC와 M7 실적 이벤트에 집중할 예정. 4월 FOMC의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화된 상태이므로, 파월 의장 마지막 기자회견이 금융시장에 더 높은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1) 중동발 에너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시각 변화, 2) 지난 3월 고용 서프라이즈 확인 이후 고용 상황에 대한 평가, 3) 파월 의장 본인의 임기 만료 후 연준 이사직 잔류 여부 등이 관전 포인트.

현재 Fed Watch 상 시장 컨센서스는 올해 12월 FOMC까지 금리 동결(확률 70%대), 첫 금리인하 시점은 27년 9월 FOMC로 형성된 상태. 이 같은 연내 금리 동결 전망이 4.2~4.3%대에 머물고 있는 미 10년물 금리의 레벨다운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바이오, 테크 등 성장주들에게 할인율 제약을 가하고 있는 요인. 따라서, 4월 FOMC 이후 시장의 연준 정책 경로를 둘러싼 베팅 변화에 따른 10년물 금리 향방에 주시할 필요.

비슷한 시점에 발표 예정인 MS, 아마존, 메타, 알파벳의 분기 실적도 간과할 수 없는 대형 이벤트. 지난 4분기 실적시즌 당시 이들의 26년 연간 합산 CAPEX 가이드는 기존 약 5,000억 달러에서 약 6,500억 달러로 대폭 상향했지만, 시장에서는 과도한 지출에 따른 수익성 훼손 우려라는 악재로 해석했었음.

그러나 4월 이후 M7 지수(M7 개별 주식을 동일 비중으로 계산한 지수)는 약 15% 넘게 급등하면서 주가 회복 국면에 진입한 모습(같은 기간 S&P500 +9%). 이들 M7주의 평균 선행 PER도 4월 말 현재 16배 수준으로, 25년 이후 평균치인 30.8배를 크게 하회할 정도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전보다 크지는 않아 보임.

이제 반도체 등 국내외 AI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주가 상승 여력을 결정하는 것은 이들의 실적 서프라이즈 강도 및 CAPEX 변화에 달려 있을 전망. 더욱이 전일 오픈시가 주간 사용자수, 매출 등 내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발표하면서, AI 투자의 지속성에 재차 의구심이 생성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실적 민감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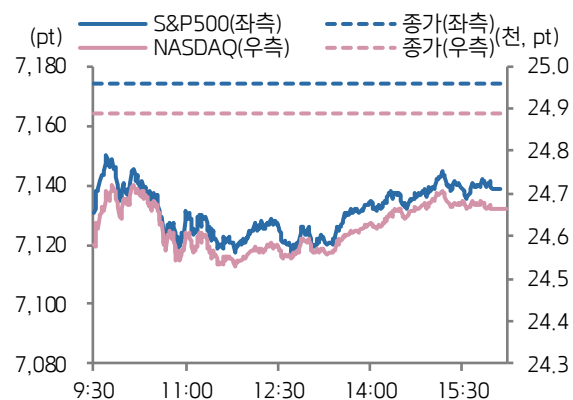
일단 “실적 서프라이즈 + CAPEX 상향”이 증시의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판단(AI 인프라 투자 지속 + 수익성 우려 완화 = AI 주도의 메모리 슈퍼사이클 내러티브 지속). 하지만 그 밖에도 “실적 서프라이즈 + CAPEX 유지”, “실적 컨센 부합 + CAPEX 상향”, “실적 쇼크 + CAPEX 하향” 등의 여러 시나리오들이 존재. 따라서, 같은 날 치러지는 4월 FOMC, M7 실적에 대한 시장 의견이 정리되기까지 1~2거래일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증시 방향성 베팅을 재설정하는 작업은 차주부터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반도체 강세 등으로 장 초반 코스피가 2% 상승하며 6,700pt를 돌파하기도 했으나, 이후 차익실현 물량 출회, M7 실적 대기심리 등으로 상승폭을 반납한 채로 마감(코스피 +0.4%, 코스닥 -0.9%)

금일에는 오픈 A발 약재로 인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3%대 급락, 4월 FOMC 및 M7 실적 경계심리 등이 월간 코스피 30%대 폭등에 따른 차익실현 명분을 제공하면서 약세 압력을 받을 전망. 코스피200 야간선물도 1.9%대 하락 마감했기에 장 초반부터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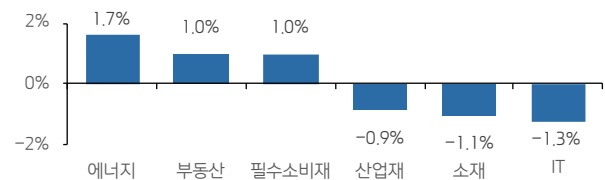
다만, 미국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시게이트가 스토리지 수요 호조 전망 등에 따른 가이드نس 상향으로 시간 외에서 15%대 급등하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 반도체주들도 시간외 반등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반도체주들에게 하방 경직성을 부여할 전망. 또 블룸에너지 역시 장 마감 후 실적 서프라이즈 및 가이드نس 상향으로 시간외 12%대 넘게 급등하고 있다는 점도 국내 전력기기, 연료전지 등 관련 밸류체인주들에게 긍정적인 수급 여건을 조성할 전망.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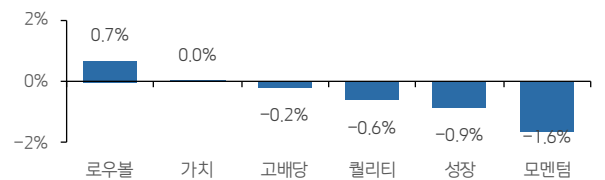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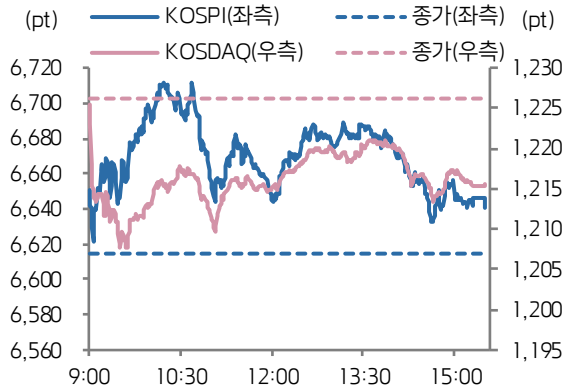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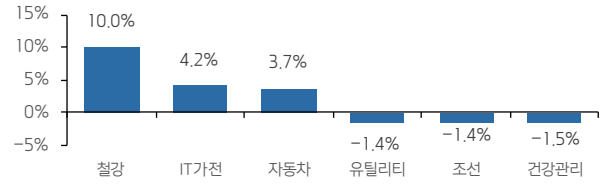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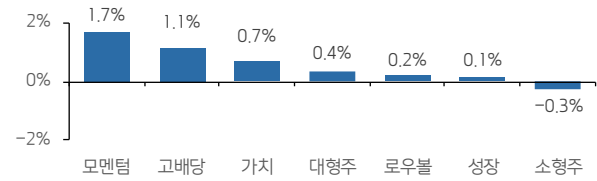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270.71	+1.16%	-0.42%	GM	78.95	+1.27%	-2.91%
마이크로소프트	429.25	+1.04%	-11.24%	일라이릴리	874.00	+0.66%	-18.67%
알파벳	349.78	-0.16%	+11.75%	월마트	127.59	+0%	+14.52%
메타	671.34	-1.07%	+1.7%	JP모건	311.45	-0.06%	-3.34%
아마존	259.70	-0.54%	+12.51%	엑손모빌	150.56	+1.6%	+25.11%
테슬라	376.02	-0.7%	-16.39%	셰브론	188.36	+1.94%	+23.59%
엔비디아	213.17	-1.59%	+14.3%	제너럴일렉트릭	127.59	+0%	+14.5%
브로드컴	399.83	-4.39%	+15.52%	캐터필러	817.87	-1.32%	+42.77%
AMD	323.21	-3.41%	+50.92%	보잉	230.72	-0.26%	+6.26%
마이크론	504.29	-3.86%	+76.69%	넥스트에라	96.51	+1.8%	+20.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6,641.02	+0.39%	+57.59%	USD/KRW	1,473.20	-0.03%	+2.34%	
코스피200	999.03	+0.37%	+64.86%	달러 지수	98.62	+0.13%	+0.3%	
코스닥	1,215.58	-0.86%	+31.35%	EUR/USD	1.17	-0.08%	-0.29%	
코스닥150	2,056.12	-1.17%	+32.88%	USD/CNH	6.84	+0.21%	-1.94%	
S&P500	7,138.80	-0.49%	+4.28%	USD/JPY	159.62	+0.13%	+1.86%	
NASDAQ	24,663.80	-0.9%	+6.12%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9,141.93	-0.05%	+2.24%	국고채 3년	3,530	+3.3bp	+57.9bp	
VIX	17.83	-1.05%	+19.26%	국고채 10년	3,865	+4.5bp	+48bp	
러셀2000	2,756.05	-1.15%	+11.05%	미국 국채 2년	3,836	+3.9bp	+36.3bp	
필라. 반도체	10,035.58	-3.58%	+41.68%	미국 국채 10년	4,346	+0.6bp	+17.9bp	
다우 운송	20,732.82	-0.53%	+19.45%	미국 국채 30년	4,934	-1.2bp	+9bp	
상해종합	4,078.64	-0.19%	+2.77%	독일 국채 10년	3,067	+3.4bp	+21.2bp	
항생 H	8,644.81	-1.27%	-3.02%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6,886.91	-0.54%	-9.78%	WTI	99.93	+3.69%	+75.29%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111.26	+2.8%	+82.84%
Eurostoxx50	5,836.10	-0.41%	+0.77%	금	4,608.40	-1.82%	+4.57%	
MSCI 전세계 지수	1,068.98	-0.56%	+5.36%	은	73.22	-2.41%	+3.71%	
MSCI DM 지수	4,638.77	+0.13%	+4.7%	구리	591.75	-1.72%	+4.14%	
MSCI EM 지수	1,629.94	+1.24%	+16.06%	BDI	2,666.00	+0.04%	+42.04%	
MSCI 한국 ETF	154.37	-1.51%	+58.78%	옥수수	475.50	+1.33%	+4.62%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657.75	+4.45%	+23.81%
비트코인	76,465.02	-0.65%	-12.76%	대두	1,189.25	-0.23%	+10.71%	
이더리움	2,295.48	+0.16%	-22.91%	커피	290.70	+0.76%	-10.8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4월 28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